

청소년 복지와 청소년 범죄

염 동 훈*

- I. 서 론
- II. 본 론
- III. 결 론

I. 서 론

1980년대 이전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이란 계층은 기성세대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여겨졌

고, 따라서 한시적이고 가변적 성격을 지닌 층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화적 특성이나 혹은 계층적 특성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경제개발 위주의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학 청소년¹⁾들은 학업에 정진하여, 기존의 문화를 성실히 전수받는 것을 사회적 규범 혹은 가치로 내면화하였고, 근로청소년²⁾들은 근면하고 성실하여 기존의 사회질서 속에서 경제적 부를 증식해가는 것을 사회적 규범 혹은 가치로 내면화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아동들이 받고 있는 사회적 보호로부터 벗어나 있었고, 기존 사회질서의 테두리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하는 과도기적 시기였다. 특히 70년대까지 기성세대의 청소년관은 대부분 일제

1)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연령층을 말한다. 청소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또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표갑수, 1994:3-4쪽), 여기서는 편의상 위와 같이 13세이상 19세이하의 남녀연령층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표갑수는 학교청소년이란 개념도 사용하고 있으나(표갑수: 위의 책), 내용상 차이는 없다.

2)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취업연령층을 말한다. 취업의 형태가 정식고용이든 혹은 임시고용이든을 막론하고, 학업을 중단한 채, 생업의 일환으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령층이다.

* 고려대·배재대 강사

의 교육이념과 방식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해방 이후 전쟁과 사회적 혼란시기에는 새로운 교육이념에 따른 제도정비의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식 제도 하에 머물고 있었으며, 60년대부터의 군사정권은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도 군사교육의 이념을 근간으로하는 획일적이고, 평균적인 인간 교육이었다. 학교에서는 획일적 교복의 착용과 짧은 머리, 그리고 군사교육의 실시로 인해, 직장에서는 과잉공급된 노동시장으로 인한 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적 규범과 질서에 대한 이탈은 바로 제재와 처벌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이들의 문화는 모범적인 것과 탈선적인 것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으로 분류되었고, 탈선적인 것은 제재와 처벌에 의해 기성문화의 영역으로 흡수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물론 당시의 한국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단계가 산업화의 초기단계로서 표준화 획일화 규격화라는 전통적 산업사회의 발전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그것을 청소년 계층만의 특성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어쨌든 청소년기라는 사회심리학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기란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한편 80년대 이후 5공화국의 등장은 비록 외형적으로나마 보다 자유로운 복지국가의 구현이라는 정책목표의 설정으로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학교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그 이전까지만 하여도 청소년문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교복과 단발머리라는 규제가 사라졌고, 세계적인 냉전종식에 따라 교육과정에서도 군사교육의 내용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사회 전체적인 생활권 신장의 여파에 따른 청소년들의 생활 역시 다양한 내용을 지닐 수 있다. 재래의 전통적 가족제도의 변화는 가족들 간의 유

대관계를 약화시키며, 가족내의 사회적 관계 역시 전인적 정서적 관계로부터 선택적 합리적 관계로 변화하고, 전통적 가족의 기능들 중 상당한 부분들이 공적제도와 기관으로 이양되므로써 부모와 청소년들의 관계는 세대간의 갈등을 넘어 단절의 양상마저 보이게 되었다.

정제적 풍요로움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 세대들은 기존의 문화적 양식과 규범에 대해 맹목적으로 복종하거나 수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취사선택하려 하며, 이런 상황은 일탈적 행위와 규범적 행위간의 기준에 대해 기성세대와 심한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90년대 이후 군사 독재문화의 청산작업이 이루어지며, 사회 전반에 걸쳐 보다 서구적 의미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정착되면서, 이제 더이상 청소년들은 기성사회의 제도와 질서에 무조건적으로 편입할 수 없는 독립된 문화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과거의 청소년 혹은 학생운동의 성격이 체제비판적이거나, 정치적 혁신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면, 90년대 이후의 학생운동이나 청소년 문화의 성격은 기성문화에 대해 비판적이지도 않고, 따라서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적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오히려 기성의 문화와 대등한 위치에서 다양한 한 문화적 특징으로 자리매김되고자 하며, 그런 태도 자체에서 이미 흑백논리의 획일성을 벗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청소년들의 문화적 특성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사정이며, 따라서 그런 정책의 산물로서 사회복지 정책은 청소년의 일탈적 문화를 범죄적인 것으로 단죄하거나 격리하려는 목적에서 벗어나서, 그런 문화적 변화를 수용하고 그들의 생애주기상의 특성이 반

영된 것으로 변모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청소년 복지 정책의 과제를 청소년 범죄와 관련시켜 생각해 보고자 하며, 그런 사회복지 정책을 위한 시론적인 성격을 지닌다.

II. 본 론

1. 청소년 범죄의 현황

(1) 70년대까지의 범죄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특성

한국 사회에서 1970년대는 비약적 경제개발의 정점에 서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유신헌법에 따른 군사독재의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런 사회적 경제적 상황은 국가내의 빈부 격차를 극대화시켰고, 계층간의 위화감이 증대하였던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청소년들은 부모의 경제적 격차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사회적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고, 부모들에 대한 귀속적 지위가 자신들의 또래집단간의 위화감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의 자녀들과 그렇지 못한 부모의 자녀들은 학교나 그밖의 사회단체 속에서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생활상의 차이가 그들의 관계를 계급적 차별성을 지닌 관계로 만들게 되어, 부모의 계급적 관계가 그대로 자녀의 계급적 관계로 이전되는 모습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사회경제적 차이에 대한 합의된 정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자녀들의 경우에는 그런 차이에 대한 합의된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들의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인이 되

고 있었다. 이처럼 계급적 특성에 입각해서 형성되는 청소년들의 또래집단은 하위집단으로 갈수록 일탈적 성향이 강해지며, 반사회적 적대감과 경제적 욕구충족을 목적으로하는 우범집단의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었다. 이런 우범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주로 하위집단에 속하고 있으며, 그런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상급학교의 진학을 포기해야만 하는, 혹은 상급학교의 진학 가능성이 적어 자신들의 학업적 성취의욕을 상실한 청소년들이 많았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서 부모들조차 자녀들에 대한 적극적 기대와 격려를 해줄 수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열등한 존재로 폄하된 그들은 자신들의 아노미적 상황에서 단지 경제적 필요성 혹은, 계급적 반항심에 의한 범죄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물론 이런 사정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과정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현상이며, 따라서 한국사회만의 특수한 현상은 아니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원리가 지배적이나 미처 복지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국가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진행과정의 부산물로서 등장하는 빈부격차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현상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서의 가족들이 그 사회나 국가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결국 개개 구성원의 귀속적 지위로 규정된다. 그런데 그런 가족의 경제적 역할이 주로 부모에 전담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의 지위는 바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결정되기 마련이며, 이런 상황이 그들의 2세들의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2세들은 교육과정 속에서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또래들간의 지위 격차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그들의 정체의식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학교나 또래집단에서 지위를 결정해주는 가치체계와 그밖

의 사회적 관계의 기준이 되는 가치체계가 서로 다르며, 결국 자신의 최종적인 지위평가는 학교나 또래집단의 규범적 질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모에 의해 결정된 가족적 귀속지위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이 이들의 한계상황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런 개발도상국의 특성 속에서는 청소년들의 범죄는 그 동기에 있어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 한가지는 생존권적 범죄로 볼리울 수 있을 것이다. 즉, 절대적 빈곤 상태에서 부모나 다른 성원들의 경제적 부담능력이 적고, 그나마 육체적으로 건강한 청소년이 경제의 상당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나오는 범죄행위이다. 이런 행위는 대부분 단독범죄이거나 단순절도의 수준이며, 그 동기에 있어서는 결코 사회적 일탈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하나는 계급적 적대감의 표출로 일어나는 범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절대적 빈곤 상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상대적 박탈감이 계급적 적대감을 유발하며,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맹목적 반항을 표출하므로써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범죄의 유형은 대개 집단적이거나 폭력적 양상을 띠며, 비록 범죄조직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더라도, 집단적 행위표출로 일어나고, 나름대로의 특수한 문화적 특성까지 지니게 된다.

이런 청소년 범죄의 특징은 당시의 군사문화에 바탕을 둔 정부의 정책이 시혜적이고 교도적인 정책을 수행하므로써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해 그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호혜의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보다 원칙적인 규범에 대한 맹목적 강조와 규제일변도의 정책이었다. 개발위주정책은 청소년 범죄에 대해 원인적 처방이 아닌 대중적 처방으로 일관하였고, 그들의 사회적응

을 위한 정책을 입안할만한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청소년 문제란 다른 여러문제들의 시급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사회적 가치의 확립성은 청소년 자신들에게도 그와 같은 경제적 요인에 따른 갈등 이외의 문제는 별로 중요한 일탈요인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특수한 요인으로 취급된 그런 청소년 범죄는 대부분 일과성의 문제로 또는 특수한 계층의 문제로 취급되어 왔다.

(2) 80년대이후의 범죄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특성

유신정권의 급작스런 붕괴와 그 후의 새로운 군사정권의 탄생이 일어났던 1980년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의 가장 혼란스런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60년대 이후 계속적인 고도성장을 거듭하던 경제가 비록 일시적이었으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개발위주의 독재정책의 시행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많은 모순들이 일시에 폭발하여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과거의 유신정권과는 차별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신들의 쿠데타를 정당화해야 하는 과제를 지닌 정권자들은 그들의 정책목표를 복지국가구현으로 설정하였고, 비록 표면적이었지만 유신정권보다는 혁신적인 생활상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이런 정책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고등학생들의 머리와 교복의 자율화와, 심야통행금지의 해제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제한적이거나 확대된 자유와 60, 70년대의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적 풍요는 사회전반적인 삶의 방식을 비약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경제개발 위주의 국가시책과 냉전선상의 세계정세에 따른 문화적 폐쇄성이 사라지면서, 미국 등 서구문화의 유입은 청소년 층을 중심으로 확

산되는 과정에 있었다. 일제치하에서 교육받았던 세대들이 사회의 중심적인 위치에서 서서히 물러서면서, 해방이후 또는 전후세대들이 사회적 중심세력으로 등장하는 시대적 변화는 청소년들의 교육이념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전세대보다는 민주적 교육과정에서 공부하였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경쟁논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세대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과거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다 민주적이며 개인주의적인 면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과거보다는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새로운 경쟁논리에 휩싸이면서, 과도기적 문화지체현상을 경험하였다. 넓어진 대학입시의 문은 대학생의 숫적 증가와 함께 사회적 비중의 증가를 가져왔으나, 한편으로는 사회적 여론형성층 혹은, 엘리트적 비판세력의 지위를 약화시켰고, 단지 대중의 특수 집단으로 질적인 쇠락을 맞이하게 되었다. 70년대의 학생운동이나 청소년 문화는 독재정권에 대한 민주세력의 이데올로기로 결집될 수 있었으나, 80년대 이후 학생운동은 반독재라는 목표를 상실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를 표방하고 있었으나,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동구 사회주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계층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현상도 낳고 있었다. 또 대학생들의 숫적 증가현상은 대학생들의 응집력을 약화시켰고, 따라서 대학생 내에서도 학생운동세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므로써, 그들의 정치적 활동은 제한적이었고, 상대적 계급운동으로 편화되기도 하였다.

한편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생활태도 역시 많은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는데, 절대적 빈곤이나 근로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혹은 착취적 임금구

조가 사라지지만, 한편으로는 빈부격차의 여과없는 전시는 청소년 범죄의 형태를 단순히 경제적 빈곤이란 요인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게 만들었다. 즉, 범죄 청소년들의 구성에 있어서도 60, 70년대에 비해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생존권적 절도나 혹은 계급적 반항으로부터 유래되는 폭력이 아니라, 일정한 가치관의 부재와 쾌락적 대중문화의 모방에서 비롯되는 약물중독과 소비지향적 비행으로 변하고 있었다. 이른바 부유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물질만능의 배금주의적 행태를 대표하는 오렌지족의 등장은 청소년 문화의 일부라고는 하지만, 사회적 파문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학생범죄의 증가 현상은 80년대 청소년 범죄의 특징적인 면으로 비교될 수 있다. 60-70년대에는 청소년들 중 대학진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고, 따라서 사회적 특권층으로서의 대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으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대표적 계층으로 생각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 능력이 증가되고, 학력위주의 사회적 가치관이 더욱 중요시되면서, 대학 진학자와 미진학자간의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특히 80년대 초, 졸업정원제란 미명하에 급작스럽게 확장된 대학정원은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을 일반적인 것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여기게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산술적인 의미에서 전체의 20-30%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고등학생들 중, 대학의 진학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희박한 학생들에게 대학진학 이외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그들을 낙오자로 낙인하였고, 더우기 그들을 문제 청소년으로 보아 다른 학생들과 격리시키려는 교육정책을 일관하고 있었다. 아울러 대학진학이란 절대적인 목표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개인의 적성과 개성적인 능력은 무시한 채, 단지 학업능력만을 기준으로 청소년들을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열등한 성적의 학생들이나 학업적 적성이 낮은 학생들의 인생을 열등한 것으로 매도하는 편견으로 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소외되고,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었으며, 결국 또래 집단을 형성하여 일탈행위와 범죄행위를 경험하게 하였다. 1992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1982년부터 1991년까지 10년간 학생범죄는 33.1%에

이르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절도나 폭력과 같은 단순범죄는 줄어드는 반면, 강력범은 2배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1 참조)

또하나의 두드러진 현상은 80년대 이후 2인 이상의 공동비행이나 공동범죄의 발생이 압도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서울 소년 감별소의 자료에 의하면 1987년부터 1991년까지 공동비행의 유무분석 결과는 공동비행이 평균 75%를 상회하고 있다. 여자 비행소년의 경우 4-5명의 공동비

〈표 1〉 소년 강력범 인원 및 인구비(1982-1991년) 단위: 명, %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인원	인구비				
1982	5663	80.2	93	1375	3642	53
1983	5358	75.6	103	1388	3360	57
1984	5482	76.7	79	2110	3342	51
1985	5689	79.1	88	2287	3266	48
1986	5178	71.8	86	2314	2722	56
1987	4195	58.4	122	1973	2073	37
1988	4771	67.2	138	2529	2036	68
1989	5588	80.9	109	3000	2427	52
1990	6261	87.7	160	3334	2675	92
1991	3568	53.7	93	2238	1165	72

주: 인구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인구 100,000명당 범죄자수를 말함.

행의 수가 87년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년비행의 공동화가 뚜렷하다.”(정기숙, 1993: 4쪽) 이와 같이 80년대 후반이후 공동범죄나 공동비행의 증가는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문화가 하나의 하위문화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사회로부터 소외된 학생

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사회적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반면,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문화들이 이들에게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다. 그런 비교육적인 문화상품들을 중심으로 이들은 공통의 장을 만들 수 있었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자신들의 행위규범이나 가치관은 자신들을 소외시

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간의 내적 정서적 교감을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행집단의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특히 80년대 이후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청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이제 청소년 범죄나 비행이 단순히 생존권적 문제로부터나 혹은 계급적 부적응 현상으로 볼 수만은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1992년의 범죄백서에 따르면, 아래의 <표 2>의 소년 범죄자 생활정도별 구성비를 보면, 1979년도 하류층의 청소년들에 의한 비행이 전체 소년비행의 90.6%였던 것이, 소폭이지만 해마다 감소 현상을 보여 1991년에는 81.7%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류층은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1987년에 10.8%에서 1991년에는 17.2%로 높아졌으며, 상류층은 0.5%에서 1.1%로 높아졌다. 아직도 경제적인 빈곤층의 소년 비행이 절대다수라고 할 수는 있으나,

흔히 범죄통계에서 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류층이나 중산층의 비행이나 범죄등이 상당부분 실질적 범죄나 비행으로 입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실제 이런 변화추이는 오히려 그 정도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성장에 따른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예방의 정책이 그 방향을 점점해야 할 때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과거의 청소년 선도행정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학교교육에 준하는 학습을 통한 새로운 사회화를 시도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청소년 선도행정은 그런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선도교육을 통해서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한 때 오펜지족으로 명명되던 청소년들은 그들 가정이 사회의 상류층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학력도 고졸이상의 고등학력이라는 점에서 가난과 무식이 비행과 범죄의 요인이던 시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표 2>

소년범죄자 생활정도별 구성비(1975—1991년)

단위: 명, %

생활 년도	계	하 류	중 류	상 류
1975	(100)	(92.5)	(7.1)	(0.4)
1980	(100)	(90.1)	(9.6)	(0.3)
1985	(100)	(89.6)	(9.9)	(0.5)
1987	97,849 (100)	86,788 (88.7)	10,615 (10.8)	446 (0.5)
1988	104,052 (100)	90,607 (87.1)	12,833 (12.4)	562 (0.5)
1989	108,015 (100)	92,721 (85.8)	14,714 (13.6)	580 (0.6)
1990	105,567 (100)	87,315 (82.7)	17,688 (16.7)	584 (0.6)
1991	102,537 (100)	83,801 (81.7)	17,661 (17.2)	1,075 (1.1)

자료: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 범죄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화의 원인

(1) 산업화에 따른 아노미적 상황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의 청소년 범죄의 문제를 통괄하여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아마도 ‘아노미’란 개념일 것이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어떤 형태이든, 또 그들이 어떤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든, 기본적으로 청소년 비행이란 기성세대의 규범적 질서가 청소년들에게 차별적 행위규제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 역시, 그런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1970년대까지는 기성세대의 규범적 질서는 전통적 유교질서에 근간하고 있었으나, 1980년대 이후로는 산업사회의 자본주의적 가치가 그런 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70년대 이전의 청소년 비행은 주로 유교적 권위에 대한 도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고, 그런 비행에 대한 규제 역시 유교적 가치관에 근거하고 있었다면, 80년대 이후로는 자본주의적인 표준화되고 합리적인 지배에 대한 도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고, 그런 비행에 대한 규제 역시 합리적이고 공리주의적인 자본주의적 질서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70년대 이전까지 청소년 범죄와 비행은 과거의 신분적 질서체제가 계급적 질서체제로 변하면서, 전통적 유교이념의 전인적 인간관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단지 계급적 질서가 지배구조의 정당성 기준으로 등장한 것이다. 즉, 전통적 규범으로서의 신분적 지배는 사실 전인적인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신분의 차이는 바로 사회적 관계에 있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기준이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 속에서 신분적 질서의 비

합리성과 비효율성은 새로운 사회질서를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었지만, 경제적 질서가 지니는 상대성은 무시된 채, 계급적 관계가 과거의 신분적 관계가 지니고 있던 전인적 지배관계의 특성을 대신하였다. 계급적 관계란 단지 경제적 측면에서만 그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거의 전통적 지배질서를 대신하므로써, 사회적 관계에 있어 전인적인 관계를 규정짓는 절대적이고, 세습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런 기성세대의 가치관은 결과적으로 배금주의적 가치관을 낳았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적 규범과 질서는 자본주의적 계급질서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채, 모든 사회적 관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 이런 기성세대의 질서는 사실 기성세대 자신들에게는 이미 익숙했었던 유교적 신분질서 대신에 자본주의적 계급질서가 들어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노미적 상황에 빠져들 이유는 없었고, 오히려 세습적 신분이 아니라 획득적 계급이라는 점에서 잘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목표를 제시 하였던 것이다. 즉, 과거의 자신의 신분에 무관하게 어떤 식으로든 부를 축적하여 신분상승을 꾀할 수 있었고, 일단 경제적 부의 증가가 자신의 삶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질서와 규범에 대해 갈등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대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부모와는 다른 교육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다. 부모들이 전통적 유교적 인간관계를 내면화하면서 성장했다면, 이들은 보다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교육환경에서 자라고 있었고, 그 결과 경제적 계급구조가 절대화되고 있는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무비판적으로 내면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즉 자신이 처한 현재의 계급적 상황이 지배집단에 속하고 있거나 혹은 그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여겨지는 청소년들은 그런 사회적 관계의 정당성을 내면화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반면, 자신이 처한 현재의 계급적 상황이 피지배집단에 속하고 있거나, 혹은 계급상승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기는 청소년들은 계급상황이 전인적 관계의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기존질서에 대해 회의하거나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런 태도는 결국 비행과 범죄적 행위양식을 습득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70년대까지의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가 경제적으로 하층계급에 속하는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계급적 상황에 대한 적대감으로부터 비롯하여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폭력이나 혹은 경제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절도등과 같은 비행과 범죄가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당시에는 성과 약물남용과 같은 종류의 범죄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 역시 이를 대변해 준다.

반면 80년대 이후의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의 경우에는 비록 아노미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70년대까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이제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면서,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상승을 가져왔고, 안정된 생활을 바탕으로 여가와 오락이란 문제가 사회적 중심가치로 자리잡게 되었다. 물론 그런 여가와 오락은 철저히 자본주의적 가치관의 산물이란 점에 의심의 여지는 없으나, 경제활동이 생존권적 문제 해결만을 의미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생활권의 문제 또는 삶의 질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즉, 경제적 중산층의 비대화라는 계급구조

는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었다. 풍족해진 물질문명은 청소년들에게 보다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상업문화에 노출시켰다. 많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며 도색적인 문화상품들이 보다 확산된 Mass-Media를 통해 너무도 손쉽게 청소년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아울러 80년대 이후 교복자율화와 사회 전반에 걸친 생활 자유의 확대등은 청소년들에게 자유방임적 가치관과 기존 질서와 가치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런 이런 요인들은 청소년들의 규범적 가치관의 혼란을 유발하였고, 나아가 또래문화의 질서와 규범을 보다 보편적 사회질서와 규범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보다 발달한 통신문명은 전세계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포괄하였고, 문화이론 속에서도 적용되는 그레삼의 법칙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파고드는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외래문화는 그들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일탈적 문화에 대한 동조와 묵인 속에서 기존의 질서와 갈등하게 되며, 따라서 이들의 일탈과 범죄는 과거의 경제적 목적의 비행이나 범죄와는 구별된다. 약물복용이나 성폭행등과 같은 퇴폐적이고, 쾌락적인 일탈과 범죄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단순히 순간적 감정과 충동에 의한 일탈이나 범죄보다는 집단적인 상습적 계획적 비행과 일탈의 빈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나 일탈의 변화양상을 아노미라는 개념에 비추어 설명할 경우, 7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Merton적 의미에서의 아노미 개념을 생각할 수 있고, 80년대 이후에는 Durkheim적인 의미에서의 아노미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³⁾.

(2) 가족기능의 약화와 해체의 증가

앞서와 같은 사회심리학적 개념을 이용한 설명

뿐만 아니라, 기능론적 입장에서 가족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된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도 나름대로 설명력이 있을 수 있다. 70년대까지의 청소년 범죄와 일탈의 경우 주로 빈곤가정이나 결손가정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반면 80년대 이래의 청소년 범죄와 일탈에 있어 비교적 중산층 이상의 정상적 가정의 청소년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가 외형적인 가족 구조와 환경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중상층 가정의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전광희는 주로 가족제도의 변화나 혹은 가족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부적응 현상으로 설명하였다.(전광희, 1993) 그는 청소년 범죄자와 일탈자들의 계층적 변화를 특수성과 빈곤성으로부터 일반화와 탈빈곤화의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었고, 이런 일반화와 탈빈곤화는 산업사회의 진행과정에서 결손가정의 증가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병행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가족적 특성 자체가 청소년 범죄의 변화양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산업화, 도시화 과정의 여러 변수들이 상대적이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그는 모든 청소년 범죄나 일탈들은 사회학적, 유전 및 생물학적, 혹은 심리학적 요인들과 관련 맺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모두 나름대로 그런 일탈이나 범죄에 대한 설명력은 지니고 있으나, 어느 것이 더

설명력이 있는가를 단순비교한다는 것이 어렵고, 반대로 그런 단일 요인에 의한 설명의 제한점을 밝혀보는 우회적 방법이 용이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한편, 정기숙은 단순히 가정의 결손과 빈곤의 문제를 벗어나 가족관계의 이상여부를 소년비행의 발생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결손과 빈곤이 직접 비행화에 연결된다고 보다는 중요한 기능인 부모의 역할과 가족의 기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비행의 배경이 된다는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즉 최근 중산층의 일반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에 의한 비행과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형태상의 결손가정이나 수치상의 빈곤가정이란 개념으로는 청소년 비행과 범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부모도 존재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가정의 소년들이 비행화하는 원인을 가족 성원간의 갈등과, 부모자녀 관계의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덕한 가정으로 분류한다.(정기숙, 1993) 결국 그도 역시 청소년 문제의 중심에 가정환경을 두고 있다. 과거 80년대 중반 이전의 청소년 문제는 빈곤과 결손 가정의 문제로 집약하여 설명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그후 90년대에 이르러 청소년 문제를 단지 빈곤이나 결손가정의 환경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들이 부각되고 있다.

즉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가족제도는 많은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다. 우선 핵가족화 현상은 가족 성원간의 사회적 관계를 단순화시킨다. 많은 가족들이 서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는 확대가족의 경우, 그곳에서 성장하는 청소년은 보다

- 3) 70년대까지의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하게 나타났고, 그에 따른 불평등이 청소년들에게 기존 규범과 질서에 대한 도전과 반항을 유발시켰다. 이런 점에서 Merton이 말한 문화목표와 수단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아노미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80년대 이후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부의 증가와 확대된 생활자유 및 외래문화의 수입등이 청소년들에게는 일정한 절대적 가치가 사라지고, 모든 규범과 질서가 상대적 의의만을 지니는 것으로 보여졌다. 바로 이런 점에서 80년대 이후의 청소년 비행과 범죄는 Durkheim이 언급한 아노미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타적 규범과 가치관을 습득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사회적 관계의 근간을 형성하여, 기존의 규범과 질서에 대한 순응의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으나, 핵가족의 경우 보다 단순한 부모와 자녀만의 관계가 있을 뿐이며, 자녀들 간의 관계의 경우도 다자간의 관계가 아니라 단지 두사람간의 관계이거나 아예 형제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특히 자녀들이 각기 다른 성인 경우 자녀들간의 관계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족환경은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인성발달을 원만히 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아울러 과거 전통사회에서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었던 많은 내용들이 가족 외적인 제도나 기관으로 이양되므로써 가족의 가치와 의미가 쇠퇴해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이 가족간의 대화부족을 그들의 고민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잘 들어난다. 가족의 서로 다른 생활시간은 가정의 의미를 단지 숙식을 해결해주는 장소로 위축시킨다. 복잡하고 다양한 가족 외적 사회생활은 상대적으로 가족 내에서의 정서적 순화와 전인적 인간관계를 방해하고, 보다 개인적이며, 폐쇄적 인간관계를 강요하게 된다. 이런 사정들이 70년대까지의 가족과 80년대 이후 가족의 차이점으로 밝혀질 수 있다. 70년대까지의 빈곤가족이나 결손가족의 경우, 가족간의 대화단절과 생활시간의 차이가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의 장벽을 이루어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었다면, 80년대 이후의 중산층 이상의 가족과 일반 가족의 경우에도 그 원인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가족간의 대화단절과 생활시간의 차이가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의 장벽을 이루어 중산층이상 자녀의 비행과 범죄 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대중문화의 세대간 차별성과 80년대 후반부터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차이들은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만다. 70년대까지는 각 가정의 TV 수상기 보급률이 한가구 당 1대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TV를 시청하는 경우 가족 모두가 동일한 공간에서 시청할 수 있었고, 면접적 시간 역시 어느 정도 보장되었으나, 80년대 이후 각 가정마다 2대 이상의 TV수상기를 소유하게 되어 자녀와 부모가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각자 자신만의 공간 속에 더욱 안주하는 경향을 낳고 있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가정생활 속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을 꾀하기 힘들어지고, 이런 기능은 이제 가정이 아닌 또래집단이나 혹은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상업적 문화로 대체되고 있다. 그레섬의 법칙은 경제행위에 관한 것이지만, 문화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에게는 보다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문화보다는 쾌락적이고 선정적인 상업문화가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업문화의 확산속도는 매우 빠르다고 볼 수 있고, 특히 Video문화의 만연으로 인한 폭력적이고, 성적인 내용들이 모방심리를 자극하게 되어 비행과 범죄를 보다 과격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선정적인 만화와 외설 폭력 비디오, 및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각종 상업광고 및 음란 서적이나 출판물등은 그렇지 않아도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혼란 속에 몰아 놓고, 생리적으로도 억제하기 어려운 성욕을 자극하며,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하고 난폭성을 증가시켜 청소년 범죄를 유발하고 있다. 이런 요인들은 바로 현대 산업사회의 한 단면이며, 따라서 그 자체를 무조건 병리적인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다만 그런 모습들이 가족이 청소년에게 해야하는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하기 때문에, 여과없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인 것이다.

아울러 경제적 이유로 인해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가정에서의 모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자녀들에게는 정서적 안정과 가정의 소속감을 줄 수 있는 모의 존재를 상실하므로써, 가정이란 단지 사람들이 생활의 필요에 의해 자의적으로 형성하고 또 해체할 수도 있는 숙식공간으로만 기능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기성세대를 상실하고 만다. 그렇지 않아도 세대간의 차이로 인해 대화를 공유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은 이제 더이상 부모로부터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자신들의 또래집단만을 자신들의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소통 집단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적 사고방식과 가족기능의 약화는 가족 자체의 필요성을 의심하게 함으로써, 이혼에 의한 가족해체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70년대까지는 이혼이란 병리적인 것이며, 전통적인 규범 속에서 가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

나, 80년대 이후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여 여성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던 과거의 가족관계가 지속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대산업사회에서 남녀의 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가족관계가 정립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이혼가정이 증가하며, 이런 이혼에 의한 가족해체로 말미암아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정서적 불안과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심을 낳게 되어 기존의 규범적 질서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3) 학력위주의 경쟁적 사회

앞서도 언급했듯이 80년대 이후 특히 90년대에 들어와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중 특히 학생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를 70년대 이전의 문제와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아래의 <표 3>은 청소년 범죄 중 학생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연도별 학생 범죄동향 단위: 명, %

연 도	전체범죄(A)	소년범죄		학생범죄	
		인원(B)	구성비(B/A)	인원(C)	구성비(C/B)
1986	1,041,887	106,355	10.2	44,591	41.9
1987	1,113,662	97,849	8.8	39,939	40.8
1988	1,144,802	104,052	9.1	42,018	40.4
1989	1,337,587	108,015	8.1	52,409	48.5
1990	1,402,417	105,567	7.5	55,026	52.1
1991	1,540,914	102,537	6.7	56,496	55.1
1992	1,542,035	99,301	6.4	57,057	57.5

자료: 체육청소년부 1991: 청소년백서, 문화체육부 1993: 청소년백서

위의 표에 따르면, 1986년 이후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소년범죄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소년범죄에서 차지하는 학생범죄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증가현상을 단순히 학생들이 우범집단화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전반적인 경제적 지위향상이 교육의 기회를 증대시켜서, 청소년이라는 연령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따라서 그런 숫적인 증가의 결과 학생범죄의 발생율이 높아지는 것 뿐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 전체범죄 건 중 소년범죄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해지고 있다는 결론을 낼 수도 있으나, 그런 가설의 검증은 또다른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 연구는 청소년 범죄자들 중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단순히 통계적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70년대까지의 사회적 특징과 80년대 이후의 사회적 특징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설명하려는 것이다.

〈표 4〉 4년제 대학지원 입학현황 단위: 명

연도	지원자	입학자
1985	511,810	201,934
1986	475,569	198,235
1987	513,167	194,657
1988	753,363	187,521
1989	817,109	191,817
1990	904,306	196,397
1991	920,291	201,107
1992	903,952	211,884
1993	828,325	220,774
1994	1,058,939	231,617

자료: 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한국의 청소년지표」 147쪽에서 발췌인용.

사실 70년대까지는 사회적 인력수요에 있어 그렇게 고등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대학이상의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그리 크지 않았다. 아울러 각 가정의 경제적 능력도 자녀들을 모두 대학교육까지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것이 결코 사회적인 낙오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 경제적 발전에 따른 가정경제의 향상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아울러 사회전반적인 흐름도 이제는 보다 양질의 고급 노동력을 요구하는 산업구조가 정착되면서, 대졸 취업자와 고졸 이하의 취업자간의 임금과 승진등에서 차별이 심해지기 시작하였고, 이런 불평등한 임금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자녀에게는 대학교육을 시키겠다는 부모들의 교육열이 더욱 강화되었다. 한편 인구성장 억제정책에 따라 가구당 자녀수가 줄어들면서, 적은 수의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소득증대는 이제 경제적 이유로 대학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었으나, 실제 대학의 인원증가는 대학진학 희망자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대학의 문은 좁아졌고, 그 좁은 문으로 몰려드는 많은 청소년들 중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나 패배감들은 불가피한 경쟁을 강요하는 기존의 사회적 규범과 질서에 대한 반항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바로 이런 지나친 학력위주의 경쟁문화가 학생들을 결정적으로 차별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쟁에 승리할 수 없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으려 하였고, 그것마저 용이하지 못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쉽게 일탈적 포레문화에 젖어들 수 있었던 것이다. 위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1985년부터 1994년까지 10년동안

4년제대학 지원자는 거의 두배가량 증가한 반면, 입학자는 10%남짓 증가한 사실에서 대학경쟁의 치열함을 알 수 있다.

최충욱은 “학교는 전통적으로 청소년의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이나 지식과 인격을 겸한 전인적 인간의 형성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조직체이다. 그리고 학교교육의 본질적 기능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가르치는 교육기능과 기존의 문화유산을 전달하고 습득시킴으로써 새로운 생활방식을 익히게 하는 사회화 기능 및 각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과 직위를 선택하고 분류하는 선발기능 등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학교교육이 보편화되고 대중화됨에 따라 학교의 규모가 커지고, 보다 조직화되며, 또한 사회가 요구하는 수단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학교조직은 점차 관료화되고 형식화되었다. 즉 학교조직체가 공동사회gemeinschaft적 성격에서 이익사회gesellschaft적 성격으로 변모할 뿐만 아니라, 학교 조직체의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하여 점차 표준화되고 전문화 및 중앙집권화 되는 등 소위 Weber가 말하는 관료제적 성격이 강화되어 왔다.”(1992)라고 보고 있다. 이런 산업화 과정 속에서 학교교육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입시위주교육과 연계됨으로써 진학하기 위한 통과 의례로서 제도화되었고, 그런 학교에 수용된 청소년들에게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같은 곳)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취학 순간부터 대학입학 직전까지 받게 되는 모든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대학진학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의가 가장 높으며, 따라서 학교 교육의 내용과 방법 역시 올바른 인성교육보다는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청소년이 하루시간의 70% 이상을 대학입시교육을 위

해 소비하고 인생의 30% 이상을 대학입학만을 위한 시간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개인의 적성이나 소질을 계발하고, 인격도야를 통한 풍요인간의 생산이라는 교육이념과는 거리가 먼 경쟁적이고 철저히 승리만을 가치있는 것으로 여겨서 수단의 도덕성은 저버린 채, 단지 합목적성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수용능력이 한해에 20만명정도에 불과한 반면 그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학생청소년들은 패배자라는 멍에를 쓸 수 밖에 없으며, 그런 멍에를 쓰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소질이나 적성은 무시한 채, 오직 대학입시를 위한 학업에 매달려야 하고, 그 외의 어떤 생활도 결국 사치나 태만으로 취급받을 수 밖에 없다. 1991년 YMCA의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진로 및 진학문제가 6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출의 중요요인으로 가정문제(36.1%)나 퇴폐향락적 사회환경(18.1%)보다 입시위주의 환경(45.8%)을 들고 있다. 이처럼 가출의 요인에 있어 입시위주의 환경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1991년 10대와 20대의 자살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때, 또 같은 해 청소년들의 고민과 걱정거리중 진학진로와 학교공부의 문제가 62%에 이른다는 점(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한국청소년의 실태와 문제)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대학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학업과 진학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는 학생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현재상황을 도피하기 위해 일탈적인 문화에 쉽게 빠져들게 되어 약물중독이나 가출 나아가서는 극단적으로 자살이란 방법을 택하기도 하는 것이다. 70년대까지의 학

생 청소년들의 일탈이나 범죄가 계급적 상황이나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면, 80년대 이후 특히 90년대의 경우에는 지나친 경쟁심과 그 경쟁에서 패배할 경우 받게되는 사회적 냉대와 열등감의 결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이 인성교육을 포기하고 오직 대학입학을 위한 수단으로만 평가받고, 대학 입시를 위해 모든 것에 대한 포기를 강요당하는 현재의 교육상황 하에서는 결국 승자와 패자라는 극단적 평가 이외의 어떤 평가도 나올 수 없으며, 그것이 결국 세상과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없는 미완성의 청소년들에게는 극복의 의지보다는 포기의 나약함을 강요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3. 청소년 복지정책의 이념과 과제

(1) 청소년 복지이념의 현대적 수용

흔히 청소년복지를 정의할 경우, 기본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상의 정의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보호·육성·선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이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실하고 유능한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정의될 수 있다(표갑수, 1994 : 36쪽). 이런 비교적 추상적인 정의에 비추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면, 청소년 복지의 이념이란 “청소년의 모든 권리를 존중히 여겨 특수장�를 갖고 있거나 여러가지 상태(가출, 비행, 무직, 가두직업, 부랑, 중퇴생 및 재수생)를 가진 청소년은 물론 일반 청소년을 포함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면서 신체적, 지적,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자역사회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사단체, 기관들이 협력하여 청소년복지

에 관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표갑수,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복지는 단지 빈곤계층의 자녀나 장애 청소년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시혜적 차원의 경제적 의학적 혜택을 베푸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 2세 구성원들이 앞으로의 사회적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국가나 사회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즉, 그 사회나 국가의 다음 세대를 이룰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한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국가나 사회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는 단지 일과성으로 끝나거나 단순히 물질적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정책일 수는 없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80년대 이후 청소년 문제의 경향은 빈곤계층이나 특수한 청소년 집단에 의해 유발적이고,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강도나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로부터 중산층이나 일반적인 청소년 집단에 의해 집단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어나는 약물복용이나 성폭력등과 같은 일탈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청소년들을 사회의 병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단지 규제와 예방이라는 차원에서의 선도정책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입장에서 즉, 그들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그들의 정신적 행복추구를 위해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이 일정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문제는 단순히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청소년에 대한 선도라는 의미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복지추구라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런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족이나 학교의 교육기능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며, 특히 현대 사회는 어떤 한 분야가 사회 전반의 발전에 전적

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기능과 역할들이 상호연관 속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정이나 학교에 전적으로 위임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생활보장적 복지정책에만 머물 경우, 궁극적으로는 원래의 복지이념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기존의 문화나 규범적 질서에 대해 일정한 의문을 가지고 접하며, 그런 의문의 해답으로 자신들이 해석한 문화나 규범적 질서를 창출해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이 만들어 낸 문화나 규범적 질서들은 대부분 기존의 그것과는 차이를 보이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반되는 것이기도 하다. T. Parsons는 청소년기의 성역할과 연령단계의 복잡한 결합이 청소년기 특유의 행동유형을 만든다고 보고 이를 청소년 문화라고 일컬었다⁴⁾. 결국 청소년 문화란 청소년기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그들 나름의 행동방식과 생활양식을 모태로하여 형성된 독특한 문화로서 전체사회 문화나 주도(주류)문화에 대한 하나의 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부분문화를 형성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청소년 문화를 무조건 아동문화와 성인문화의 과도기적인 것으로 본다든지, 혹은 기존문화에 대한 반문화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⁵⁾. 일반적으로 청소년 문화란 ‘청소년이 처한 전환기적이고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청소년의 자아정립과 관련된 불안과 동요를 동료집단에서의 귀속의식을 통한 안정감을 토대로 보상적으로

로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표갑수, 위의 책, 19쪽). 이런 청소년 문화의 특질은 첫째, 기성문화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둘째, 창조적 대항문화의 성격을 갖는다. 셋째, 학업에 대한 가치보다 독자적인 활동을 통한 지위와 인기에 대한 가치를 추구한다. 넷째, 기성세대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욕구체계를 가지고 있다. 끝으로, 청소년 문화는 과도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된 문화의 의미를 갖는다⁶⁾.

(2) 청소년 복지정책의 과제

이런 점을 인정한다면, 청소년 문화에 대한 기성세대의 입장을 새롭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등장한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중산층 이상 가정의 청소년들이, 그리고 학생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과 범죄가 늘어난다는 것, 즉 청소년 비행이 일반화되고, 집단화된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화양식과 기존의 규범적 질서간의 정당성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지체 현상 속에서 오히려 많은 일탈 청소년과 범죄 청소년들을 양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회 전체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의 문화와 기존 문화 혹은 규범적 질서간의 일정한 조화가 필요하며, 그 방안은 바로 그들 문화가 지니는 혁신적 내용이나 독창성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므로써, 그리고 어떤 규제와 제재가 단지 기존 성인문화의 우월감의 반

4) T. Parsons, "Age and Sex in the Social Structure of the United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 1942, pp.221-224. *Essays in Sociological Theory*, Revised Edition, The Free Press, N.Y., 1954 의 글을 표갑수, 『아동청소년 복지론』, 1994, 청주대학교 출판부 18쪽에서 재인용.

5) 물론 1960년대 후반 전세계적으로 기존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에 대항하는 청소년 문화운동이 있었고, 그들의 운동은 결국 일종의 반문화운동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나, 그런 반문화 운동이 바로 청소년 문화의 본질로 볼 수는 없다, 그것은 단지 일정한 역사적 계기 속에 등장한 특수한 청소년 문화의 한 예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소년 문화가 지니고 있는 특징 중 한가지가 일정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강조된 것일 뿐이다.

6) 표갑수, 위의 책, 20쪽 참조

영이나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진정 그들의 행복을 위한 넓고도 긴 안목에서 요구되는 것임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논자는 바로 이런 작업이 청소년 복지정책 속에 반영되어야만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실제로 9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지정책은 크게 두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근로청소년을 포함하여 극빈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한 경제적 복지정책과 둘째, 학생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적 유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었다. 70년대까지의 청소년 범죄나 일탈이 주로 가난한 가정의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가정환경과 교육환경에서 소외된 반작용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결과 80년대 이후에는 그런 경제적 차원의 복지정책이 청소년 복지의 중심이 되었다. 특히 근로청소년의 생활보장이나 혹은 무직 청소년의 직업알선과 직업교육과 같은 복지 사업은 다른 복지 정책에 비해 활기있게 전개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동복지사업이나, 노인복지 혹은 장애인 복지사업등은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인 반면, 근로청소년의 처우개선이나 직업교육등과 같은 복지사업은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직접 산업현장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경제목표와 기업의 투자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많은 직업훈련원과 직업학교가 생기고, 일선 기업들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므로써,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그런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사업은 거의 전적으로 학교교육에 의존하는 실정이었고, 그런 학교교육은 또한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교육에 집중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창달의 가능성을 담아 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학생 문화란 상업문화에 의해 주도된 선정적이고 폭력

적인 내용에 무방비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한편, 이런 상업문화에 의한 청소년 문화의 오염을 막기 위해 학교당국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단속한다는 소극적 차원에 머물고, 학생들에게 그런 상업문화를 대신할 수 있는 또다른 문화마당을 열어주지 않으므로써, 학생들의 문화적 갈증은 심화되었다. 가장 문화적 욕구가 높고, 문화적 수용능력이 강한 중고등학생들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대학입학을 위한 학업뿐이었고, 그런 학업에 방해가 되는 모든 생활은 바로 유해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성세대들의 편견이 학생들의 독창적인 문화를 단지 퇴폐적이거나 반문화적인 것으로 거부하였다. 1994년 청소년 지표에 의하면 중학생의 경우 여가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38.9%인 반면, 불만인 경우는 29.7%이고, 고등학생의 경우 만족하고 있는 경우는 26.3%인 반면, 불만인 경우는 44.1%에 달하고 있다(아래의 표 5를 참고). 이렇듯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게서 여가생활의 만족도가 낮고,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불만의 정도가 중학교보다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학생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여가활동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수단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기성세대의 판단에 따라 대학 입시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대부분 유해환경으로 규정하고, 따라서 모든 생활의 중심을 입시위주의 학과공부에 두고 있는 학교생활과 부모들의 기대는 편협한 가치관을 청소년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그런 획일적 가치관의 정당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혹은 그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므로써, 극단적인 행태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표 5>

청소년의 여가활동 만족도(1993)

단위 : %

	계	매우 불만	대체로 불만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중학교	100.0	10.1	19.7	31.2	28.9	10.0
고등학교	100.0	17.8	26.3	29.6	20.8	5.5

자료 : 한국의 청소년지표 1994 : 238쪽

자신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한 채, 매달리고 있는 학업이 자신과 주위의 기대만큼의 성과를 보이지 못할 경우 이들은 그 학업성적이라는 굴레에 치여 일탈적인 행위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아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않지만,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두번째로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고, 또 그들 중 자살충동을 느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나아가 그런 자살이나 자살 충동의 원인이 주로 학업성적에 기인하는 경우가 증가한다는 사실들은 이런 점을 반영해주는 것이다(최진숙, 1991).

근본적으로 학벌위주의 사회적 가치와 제도가 대학과 인생을 동일시 하는 분위기를 낳고 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대입에만 몰두하여 보내게 되는 청소년들은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양식을 선호하게 되고, 그런 문화는 기성문화와 이질적일수록 또 기성 문화에 의해 일탈적인 것으로 평가될수록 자신들의 독특한 정체감을 대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그들의 문화는 더욱 급진적이거나, 탈규범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고, 오히려 이런 그들의 문화적 욕구를 단지 시장원리로 받아들여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상업문화의 제공자들은 더욱 선정적인 문화양식을 판매하므로써, 더욱 그들과 기성세대간의 벽을 높여 놓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청소년 문화란 과도기적인 것이

아니며, 병리적인 것은 더욱 아니다. 누구나 성장과정 속에서 청소년기를 거치게 되고, 비록 그들이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더라도 청소년기는 다음 사람들에 의해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화양식 역시 역사성을 지니는 것이며, 바로 그들 문화의 역사성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청소년 문화양식들은 기존 문화양식에 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청소년 복지 정책의 우선적인 과제는 이런 학생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혁신성과 탈규범성을 어떻게 전체 문화적 틀 속에서 여과하고 소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기성세대가 자신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규범만을 절대시할 경우, 청소년들 역시 자신들의 문화만을 절대시하게 되고, 이를 단지 일탈적인 것으로 무시한다거나, 혹은 원위적인 태도를 규제할 경우, 청소년들은 스스로 기존 규범적 질서에 동화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문화나 규범적 질서 속으로 빠져들어가, 자신들만의 배타적 세계를 구성하므로써, 더욱 비행화하게 된다. 학생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통제할 채, 획일적인 가치만을 고집할 경우, 그들은 자신들이 원치 않는 문화에 대한 적대감만을 지닐 뿐, 청소년 문화가 지닐 수 있는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특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듯이, 비행이나 범죄의 책임을 물어 퇴학이나 정학 등의 처벌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았던 학생들보다 비행집단이

나 범죄집단에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으며, 그만큼 재범의 가능성도 더 있다는 점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기성세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또 그들이 자신들만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장을 마련해주므로써, 그들의 문화가 비행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아울러 그들도 자신들의 문화가 지니고 있는 한계와 상대적 성격을 인식하여, 기성의 문화와 규범적 질서를 내면화할 수 있는 계기를 주어야 할 것이다.

바로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쉽게 대두될 수 있는 문제는 아마도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70년대까지 생존권적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따라서 정부의 청소년 복지 역시 경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이 중심이 되어 왔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고도 성장에 따른 중산층의 비대화라는 새로운 계층구조 속에서 이제 사회적 관심은 단순히 생존권적인 빈곤문제로부터 벗어나 생활의 질이란 문제로 향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선상에서 청소년들의 복지 역시, 단순히 극빈 청소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만 국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앞의 표 5에서 이미 보았듯이 응답 청소년들 가운데 중학생의 경우 약 30%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여가생활에 불만을 느끼고 있고, 또 고등학생의 경우는 더욱 증가하여 약 45% 정도의 응답자들이 역시 불만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1990년에는 응답자 전체중 78.3%에 이르는 응답자가 경제적 부담과 시간부족을 주요 이유로 들고 있었고, 1993년의 조사에서는 74.5%에 이르는 응답자가 같은 이유를 들고 있었다. 이런 조

〈표 6〉

청소년들이 휴일을 보내는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계	성 별		연 령 별		
		남	여	18-19세	20-22세	23-24세
하는 일 없이 편히	29.7	29.7	29.8	27.9	31.6	29.2
TV, 잡지를 보며	57.6	53.4	61.7	55.8	56.1	62.7
친구와 함께	58.3	60.2	56.3	57.3	62.7	52.1
가족과 함께	40.1	29.3	50.8	35.6	38.8	49.2
독서나 음악감상	47.7	42.0	53.4	54.4	46.0	40.7
악기 연주	9.7	11.8	7.5	8.5	11.8	7.6
취미 생활	14.3	13.5	15.1	13.7	14.7	14.4
쇼핑, 원도우쇼핑	15.2	4.0	26.2	8.5	17.8	20.3
영화, 연극, 스포츠관람	33.9	32.1	35.7	33.0	38.8	26.7
운 동	20.9	34.9	6.9	23.9	21.2	15.7
하이킹, 드라이브등	10.8	11.6	9.9	6.0	13.5	13.1
기 타	7.7	8.0	7.3	8.5	8.2	5.5
무 응 답	0.1	0.0	0.2	0.3	0.0	0.0
(사 례 수)	(1002)	(498)	(504)	(351)	(415)	(236)

자료 :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 (1991), 421-422쪽

사 결과를 바탕해 볼 때, 이제 청소년의 여가문제는 단순히 가정과 학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여가의 기회를 갖고, 그런 여가시간 동안 금전적 시간적 구애를 덜 받으면서, 자신들의 개성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만 있다면, 또 획일적 학업이 아닌 그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집단활동을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문화는 결코 기성문화에 대한 반문화적 성격이나 퇴폐적 성격을 지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학생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복지정책은 형식에 흐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각종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나, 그 수혜대상은 전체 학생과 근로청소년의 각각 10.0%와 1%미만에 불과한 실정이고⁷⁾, 대부분의 학생들은 체계적이거나 지속적인 취미생활이라기 보다는 단지 시간 보내기 차원의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취미생활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휴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위의 표 6과 같다. 이 표를 참고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이 TV나 잡지 또는 친구와의 사적인 교우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에 비해 집단적인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으로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가활동은 철저히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한 사회의 문화와 규범적 질서를 내면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지 못하며, 따라서 기존의 규범적 질서나 가치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현대사회는 가족의 기능과 역할

이 상당부분 사회로 이전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가정교육이 과거와 같이 청소년들의 사회화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시대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화에 대한 책임은 결국 한 사회나 국가에 상당부분 이전되고 있으며, 그런 사회화의 대상은 단지 불우청소년이나 장애아동 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 특히 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III. 결 론

본 논문은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의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경향성이 날로 일반화되고 조직화되며, 잔인해지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여 그런 변화의 요인을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80년대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과 그 이후 그런 경제성장의 열매를 딸 수 있게 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으며, 그런 변화를 단지 범죄예방이나 비행소년의 선도라는 차원이 아니라 청소년 복지정책의 개발을 통해 그들이 비행하려는 의도를 미리 막아야 하지 않을까하는 의도가 본 논문의 목적이다. 논자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특히 학생 청소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생활가치가 학업위주로 편중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놀이문화의 마당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고, 자신들의 가치나 생활양식의 상대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기성세대의 경

7) 김영모 외『청소년정책연구』, 1991, 13쪽 참고

쟁논리와 현대문화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은 청소년들에게 즉흥적이고, 이기적이며, 외양적인 인간관계를 강요하고 있으며,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되고 마는 주변인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서도 그들이 보이는 일탈적 행위가 기존의 가치규범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그들을 다시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청소년으로 낙인하고 격리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여러 청소년 연구기관의 조사들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비교적 건전하고, 진취적인 가치관과 사회관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들이 대중적 인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에 맹목적으로 몰입하고 있는 현상을 단지 일과성의 것으로 보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들은 그런 인물들로부터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끼며, 그런 인물들이 보여주는 선정성에 자신을 몰입한다. 따라서 그런 대중문화의 선정성이 가져오는 한시성과 상업성으로 말미암아 극단적으로는 자신마저 포기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물론 청소년기에는 영웅을 필요로 하고, 그 영웅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삶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그런 Charisma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놀이문화가 일정한 가치지향적 교육이 되지 못한 채, 감각적이고 피상적인 현실도피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대중음악 가수의 돌연한 은퇴발표가 수많은 청소년들을 일종의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고 있는 점은 대중문화의 문제라기 보다는 청소년 문화의 결핍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맹목적인 대학입시 위주의 학교교육과 내팽개쳐진 가정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단지 파격적인 리듬과 율동 그리고 의상등 기성을 부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중음악 가수를 영웅시하게 만든다. 파격과 그 파격에 대한 모방 그것이 청소년 문화의 본질은 아닌 것이며, 진정한 청소년 문화의 생명은 기성문화와의 상대성 속에서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복지정책은 이제 과감히 그 영역을 넓혀야 하며, 경제성에 기반을 둔 행정이 아니라, 궁극적 인간관과 사회관을 바탕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영모. 1990. 「한국사회복지의 제문제」,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김영모 외. 1991. 「청소년정책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김혜영. 1993. “과잉교육화의 문제” 「오늘의 한국사회」 임희섭의 나남, 1994, 391-409쪽
- 남세진. 1991. 「인간과 복지」, 도서출판 한울
- 도종수. 1993. “대중사회와 청소년문제” 「청소년문제론」, 한국청소년개발원, 42-51쪽
- _____. 1993. “사회변동과 청소년문제” 「청소년문제론」, 한국청소년개발원, 3-15쪽
- 류미희. 1994. 「한국빈민/공단 지역의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 문화체육부. 1993. 「청소년 백서」
- 심의보. 1993. “한국 청소년 교육이념 탐색” 「도산학술논총」, 291-322쪽
- 이광호 외. 1993. “지방자치제하 청소년 행정체계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 연

- 구], 4권 3호, 64-79쪽
- 이돈희. 1993. “청소년 문화 활성화의 방향과 과제” 「통일로」, 120-129쪽
- 이용교. 1993. “청소년 복지 정책의 발전방향” 「사회복지」, 23-44쪽
- 임희섭. 1993. “청소년 문화의 당면문제와 발전을 위한 과제” 「통일로」, 116-125쪽
- 전광희. 1993. “한국가족제도와 청소년 범죄의 변동” 「한국형사정책연구」, 4권 2호, 5-41쪽
- 정기숙. 1993. “소년비행의 동향과 가족병리와의 관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권 3호, 1-13쪽
- 천정웅 외. 1993. “청소년관계 법령 및 제도보완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4권 3호, 80-95쪽
- 최진숙. 1991. “소아·청소년 자살의 역학”, 소아·청소년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최충욱. 1993. “가정과 청소년문제” 「청소년문제론」, 한국청소년개발원, 16-29쪽
- _____. 1993. “학교와 청소년문제” 「청소년문제론」, 한국청소년개발원, 30-41쪽
- 통계청. 1993. 「한국의 사회지표」
- 표갑수. 1994. 「아동 청소년복지론」, 청주대학교 출판부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 연구」, 한국청소년 개발원 연구보고 '93-06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청소년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I), (II)」, 한국청소년 개발원 연구보고서 '94-02, '94-03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한국의 청소년 지표」 한국의 청소년 지표 개발연구
- 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소년비행의 국제비교」, 한국청소년 연구원, 연구자료 '91
- 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한국청소년의 실태와 문제」, 한국청소년 연구원, 연구보고 '91
-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청소년관계법령 및 제도보완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원, 연구보고 '92
-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청소년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원, 연구보고 '92
- 황창순. 1993. “비영리조직과 청소년 복지” 「한국청소년연구」 4권 4호, 5-18쪽